

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, 이소라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442호
「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최근 탈모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구가
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
서울시 차원에서 탈모로 인해 육체적·정신적 고통을 받는
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
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그런데 '왜 그 많은 질환 중에 '탈모'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냐'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.

탈모는 직접 보여지는 신체적 질환으로,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실제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탈모환자의 60% 이상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, 탈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취업 준비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.

다음은 왜 청년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,

탈모 질환의 64.4%는 20대에서 40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.

이 중 청년의 경우, 취업, 연애·결혼 등 사회진출이

활발해지는 시기로 탈모로 인한 외형의 변화는

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,

심리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져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은

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'비급여항목을 공적 예산의 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'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만, 과거 난임 치료의 경우 역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.

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난임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확산되면서,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현재 양·한방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중입니다.

이는 오히려 지자체의 지원제도가 확산되며,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가져온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혼란이라기 보다 저출산을 위한 정책적 의지였듯이,

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거나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에게 비급여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일부를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도록 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